

중국인과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이동동사 구문 산출과 이해에 나타난 L2 통사 점화 효과

심은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학과 강사

- I. 머리말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I. 머리말

암시적 학습은 특정 패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문법 지식을 습득하는 인지 과정을 거친다. 통사 점화는 일종의 정적 촉진 효과로, 화자가 발화를 할 때 최근에 노출되었던 특정 통사 구조를 자신의 후행 발화에서 재사용하게 되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말한다(McDonough & Trofimovich, 2009). 인간의 사고나 행동은 의식적인 의도나 지각이 없어도 자극을 통해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최근 자주 활성화된 개념들은 그렇지 않은 개념들보다 더욱 쉽게 떠오르며 이후의 입력 자극의 처리 과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전의 맥락이 새로운 정보의 해석에 미치는 효과를 ‘점화 효과’라고 부른다(Myer & Schvaneveldt, 1971). 이러한 면에서 통사 점화(syntactic priming)는 시행착오를 통한 암시적 혹은 절차적 학습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Branigan & Messenger, 2016; Chang et al., 2006; Dell & Chang, 2014; Jackson & Ruf, 2018). 예를 들어, 언어 사용자가 능동태 문장을 들을 것으로 예상했다가 수동태 문장을 듣게 되면 이후에 듣게 될 문장이 수동태 문장일 것이라는 예측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기대의 변화는 언어 사용자의 발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후에 발화하게 될 문장이 수동태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와 같은 적응 학습은 언어 산출 체계에 누적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궁극적으로는 언어 사용자의 지식을 변화시킨다(Bernolet et al., 2016). 즉, 통사 접화는 학습자의 언어 산출 방식뿐 아니라 언어 이해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통사 접화 효과를 규명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의를 가진다. 먼저 접화 효과를 통해서 언어 사용자가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 기제를 발견할 수 있다. 접화 효과의 존재는 문장 구성에 있어서 발화자가 서술어의 내재적 어휘 특성보다는 고빈도로 노출된 구문 구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용 기반 접근에서는 이와 같은 L1 습득 기제가 L2 학습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므로 통사 접화 효과는 L2 문법 혹은 구문 학습 기제를 밝히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로, 접화 효과는 교사가 L2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언어 정보 형태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접화 효과가 존재한다면 개별 문법 규칙을 제시하는 명시적 교수법보다는 구문 형태로 반복적, 집중적으로 제시하는 암시적 교수법이 실제 발화라는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L2 통사 접화 연구는 절대 다수가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영어와 유형론적으로 상이한 한국어 학습자에 주목했다.

본 연구가 통사 접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선택한 한국어 구문은 조사 교체 구문이다. 통사 접화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구문은 Goldberg(1995)의 이중타동구문이다. 그러나 한국어는 문장 구조가 어순이 아니라 격 표시인 조사를 통해 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어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문을 유형화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한국어에서는 논항 구조 구문 형성에 있어 조사가 주요 요소라고 보고 본고는 조사 교체가 발생하는 한국어 이동 동사 구문을 연구 대상으로 정했다.

피험자로 중국인, 일본인 학습자를 선정한 이유는 L1과 L2의 형태적 유사성 변인의 영향을 보고자 함이다. 중국어는 명시적 형태 변화가 거의 없고

덩어리 표현의 구문 사용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언어이며 SVO 어순 체계를 가지고 있어 한국어와는 유형적으로 상이하다. 반면에 일본어는 한국어와 같은 어순, 조사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어 조사에 대응되는 일본어 조사의 의미 기능과 분포적 제약은 상이하다. 중국인, 일본인 학습자 발화에 나타난 통사 점화 효과를 대조하여 L1 변인이 L2 통사 점화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본고는 연구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연구 문제 1. 통사 점화로 인해 한국어 학습자들의 이동동사 구문 산출에 차이가 발생하는가?

연구 문제 2. 통사 점화로 인해 학습자들의 한국어 이동동사 구문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발생하는가?

연구 문제 3. 통사 점화 효과는 학습자의 L1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구문 문법과 통사 점화

Goldberg(1995)는 ‘문장 층위의 구문은 그 자체로 어휘와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는 언어의 기본 단위이자 실체이며, 형태와 의미는 동사-논항구문(Verb Argument Construction, 이하 VAC)을 통해 체계적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했다. Goldberg(1995)는 동사와 논항구문을 연결하는 특정 의미역을 사건구조 별로 유형화했다. 예를 들어, X가 Y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사건(X causes Y to RECEIVE Z)을 포착한 장면은 전달하는 행동의 주체인 ‘동작주’(X), 무언가를 전달받는 수용자인 ‘피영향주’(Y), 그리고 전달물에 해

당하는 ‘대상’(Z)이라는 논항을 필요로 한다. Goldberg(1995)는 상기의 구성 원리를 통해서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대표적인 사건 장면을 전달(이중타동), 사역이동, 결과, 이동, 능동적 행위, 방식/태도의 6가지 정도로 분류하여 영어의 동사논항구문을 이중타동구문(ditransitive), 사역이동구문(caused motion), 결과구문(resultative), 자동사 이동구문(intransitive motion), 능동 구문(conative), 방식/태도 구문(way)으로 유형화했다.

한편 구문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은 여러 문장 성분들 가운데 화자가 중요 정보로 초점을 두고 그것을 형태적으로 드러내는 윤곽화(profiling)를 통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 윤곽화는 ‘초점화’(focalized) 혹은 ‘전경화’(foregrounded)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조지가 릴리에게 티켓을 보내는 사건을 기술할 때, 문장 성분을 달리 배치할 수 있는데 이 때 ‘전달’이라는 사건이 동일하게 묘사되지만 윤곽화 방식은 (1)의 두 구문에서와 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 가. George sent Lily the tickets

‘조지는 릴리에게 티켓을 보냈다’

(윤곽화: 피영향주, 대상)

나. George sent the tickets to Lily

‘조지는 티켓을 (릴리에게) 보냈다’

(윤곽화: 대상)

(1)의 문장들과 같이 전달의 사건을 나타내는 구문에서 사건의 참여자인 ‘Lily’(피영향주)와 티켓(대상)이 윤곽화되면 (1가)와 같이 각각 IO와 DO의 문장 성분이 논항으로 실현되어 이중목적어 구문이 된다. 반면 ‘Lily’(피영향주)가 윤곽화되지 않으면 (1나)처럼 여격 전치사구 ‘to Lily’로 실현되고 비논항이 된다. Goldberg는 이와 같은 전치사 구문을 어휘적으로는 윤곽화되었지만, 구문적으로는 윤곽화되지 않았다고 본다.

이는 통사 점화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었다. 예를 들어, 피험자에게 행동 주역, 피행동주역, 대상역을 포함한 어떤 사건을 묘사하도록 했을 때, 피험자가 그 직전에 이중목적어 구문을 읽었다면, 피험자는 여격 전치사 구문인 'X gave Z to Y' 대신에 방금 노출되었던 구문과 유사하게 'X gave Y Z' 구문을 사용해서 그림을 묘사하고, 반대로 여격 전치사 구문을 읽은 경우는 여격 전치사 구문으로 발화하는 경향이 있음이 관찰되었다(Bock, 1986; Bock & Levelt, 1994; Pickering & Branigan, 1998).

2. 한국어 이동동사 VAC

구문문법에 의하면 구문의 구성 방식이 달라지면 사용된 술어가 동일할 지라도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전제한다. 즉, 구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동사의 어휘적 속성만이 아니라 구문의 틀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구문의 틀은 조사로 결정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어 구문의 의미는 동사와 조사의 결합 방식으로 실현되는 VAC의 의미 틀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생성문법 관점에서 영어의 능동태, 수동태 문장은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는 한 의미 차이가 없다고 보지만, 구문문법에 의하면 두 구문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의미-형식 간 조합인 것이다. 왜냐하면 동작주의 능동적 사건 참여(능동)와 사건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수동)은 다른 경험 장면을 구성하고 그 결과 의미 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Goldberg(1995)의 구문문법에서 보여준 영어 이중타동구문이 이중목적어 구문과 여격 전치사 구문으로 교체되는 방식은 한국어로 대응시켰을 때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한국어에서 원형적인 이중타동구문은 수용자 논항이 [N에게]로, 대상 논항이 [N를]로 실현되는데, 이것이 영어로는 이중타동구문(S V O1 O2)보다는 오히려 여격 전치사 구문(S V O PP)에 가깝게 대응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1가) 'George sent Lily the tickets' 구문을 한

국어로 대응시키면 ‘조지가 릴리를 티켓을 보냈다’가 되고,¹⁾ (1나) ‘George sent the tickets to Lily’ 구문이 ‘조지가 릴리에게 티켓을 보냈다’가 된다. 한국어에서 목적격은 조사 ‘를’로 실현되고 여격은 조사 ‘에게’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영어에서는 ‘전달’이라는 사건을 나타내는 가장 원형적인 구문이 이중목적어구문(S인 V O1 O2)반면, 한국어에서는 ‘에게’로 실현되는 여격 구문([N가][N에게][N를][전달동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어 전달구문 내 통사 점화 효과를 살핀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점은 간과하고 통사적 실현 방식에만 근거하여 영어와 동일하게 이중목적어구문을 목적격 표지 ‘를’이 두 번 등장하는 ‘를’ 중출구문으로 설정해왔다(박분주 2009; 신정아 2015). 그러나 ‘를’ 중출구문은 조사 교체 대응 형태인 문장과 수용성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어 ‘를’ 중출 구문에 대해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와 외국인 학습자 모두 비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심은지,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조사 교체 대응 형태가 중출 구문으로 실현되지 않는 이동동사 구문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했다. <표 1>은 본 연구가 주목하는 한국어 이동동사 VAC이다.

<표 1> 한국어 이동동사 VAC²⁾

사건 <참여항>	조사교체	예문
방향중립성 이동 <장소 이동>	예-를	주연이가 학교에/를 가다

- 1) 사실상 기존의 통사 점화 연구에서 이루어진 이런 식의 번역은 부자연스럽다. ‘Lily’가 대격과 여격으로 쓰인 것을 격 표지의 1차적인 기능대로 각각 ‘를’, ‘에게’로 대응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합당해보이지만, 한국어에서 (1가), (1나)는 번역하면 둘 다 ‘조지가 릴리에게 티켓을 보냈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 2) 본 연구는 기존의 국어학 연구 중에서 조사 교체를 구문 문법적으로 접근한 이선희 (2004)의 구문 분류 유형을 일부 반영하고, 한국어 코퍼스를 근거로 정립한 정주리 (2004)의 한국어 VAC 유형을 참고하여 한국어에서 구문 문법의 대응 원리가 적용되는 한국어 이동동사 VAC를 <표 1>과 같이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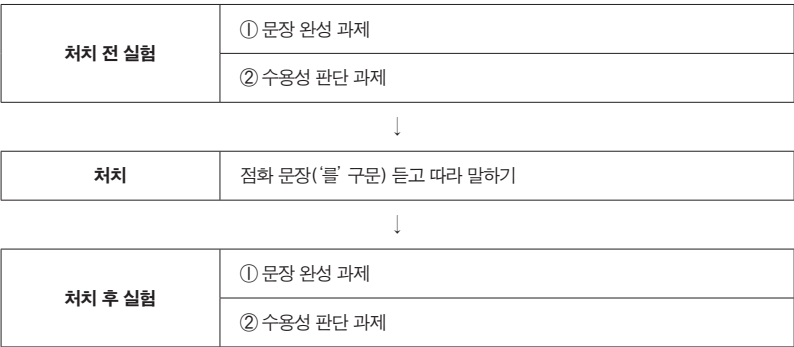
일탈성 이동 <장소 이동>	에서-를	진이가 집에서/을 나오다
도달성 이동 <도착점 이동>	(으)로-를	기차가 서울로/을 향하다

한국어 이동동사 구문은 논항구조 참여항에 따라 <표 1>과 같이 방향중립성 이동 구문, 일탈성 이동 구문, 도달성 이동 구문으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각각의 구문 유형에서 ‘에-를’, ‘에서-를’, ‘(으)로-를’의 조사 교체가 발생한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은 TOPIK 성적 5급 이상인 고급 숙달도 중국인 학습자 50명, 일본인 학습자 2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연령대는 20-30대로 제한했다.

통사 점화로 언어 산출에 변화가 있었는지는 점화된 구문 형태(‘를’ 구문)로 발화한 빈도수를 측정하여 자유 발화시 피험자가 선택한 해당 구문 형태의 빈도수와 비교하여 양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통해 검증했다. 언어 이해에 변화가 있었는지는 조사 교체 이동동사 구문에 대한 이해도가 점화 처치 이후에 처치 전보다 높아졌는지를 비교해 검증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처치 전 실험에서 문장 완성 과제(산출), 수용성 판단 과제(이해)를 통해 학습자가 이동동사 구문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사전 지식 즉, 형태와 의미를 연결하는 방식을 확인했다. 그리고 ‘를’이 사용된 이동동사 구문을 듣고 기억하여 따라 하기를 점화 처치로 제공했다. 그리고 처치 전 실험과 동일한 과제로 처치 후 실험을 시행하여 처치 자극으로 인해 학습자들의 이동동사 구문 산출, 이해 방식에 변화가 생겼는지를 살폈다. 일련의 실험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실험 절차 순서도

문장 완성 과제의 목적은 피험자가 이동동사 구문을 생산할 때 어떤 조사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정이가 오랜만에 학교…(나오다)’라는 불완전한 문장을 완성하는 방식을 통해서 ‘에/를 나오다’ 이동동사 구문에서 피험자가 어떤 조사를 선호하는지 볼 수 있다. 조사의 생략과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문장의 후반부를 괄호 안에 주어진 동사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고 발화하는 방식의 유도된 생산 과제(elicited production task)를 부과했고, 총 12개의 실험 문항과 12개의 혼란 문항(filler)을 컴퓨터 화면에 무작위 순서로 보여주고 완성된 문장을 발화하도록 했다. 문장 완성 과제에 사용된 실험 문항 예시는 〈표 2〉와 같다.

〈표 2〉 문장 완성 과제 실험 문항의 예시

구문 유형(조사 교체)	동사	실험 문항
방향 중립성 (에-를)	나오다	연정이가 오랜만에 학교…
	들르다	나는 배가 고파져서 편의점…
	올라타다	그 남자는 뛰어가서 겨우 버스…
	다녀오다	주미는 여름마다 하와이…

일탈성 (에서-를)	나서다	오빠는 약속이 있어서 일찍 집...
	출발하다	우리는 지금 막 서울...
	뛰어나가다	그는 시계를 보고 급히 방...
	걸어나가다	한 학생이 천천히 교실...
도달성 (로-를)	들어서다	민수가 급하게 회의실...
	들어오다	새 한마리가 갑자기 집...
	걸어나다	길이 공사 중이라 사람들이 찾길 위...
	들어가다	쉬는 시간이 끝나서 학생들이 모두 교실...

수용성 판단 과제를 수행하면서 피험자는 한국어 문장 하나를 끝까지 다 듣고 그것에 대한 수용성을 숫자 1-4(숫자가 커질수록 높은 수용성을 나타냄)로 키보드에서 표시한다. 아래 (16) 문장들은 수용성 판단 과제에서 사용된 실험 문항의 일부이다.

(16) 가. 승객들이 차례로 비행기에서 탑승했다.

나. 지연이는 급히 방을 뛰어나갔다.

(16가)는 ‘에-를’ 조사 교체 이동동사 중 하나인 ‘탑승하다’ 구문에서 잘못된 조사 ‘에서’를 사용한 비문을 제시한 예로, 정/비문 판단의 정답률을 통해서 피험자들이 이동동사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조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았다. 수용성 판단 과제에 사용된 실험 문항의 예시는 <표 3>과 같다.

〈표 3〉 수용성 판단 과제 실험 문항

구문유형 (조사교체)	동사	사용 조사	실험 문항
방향 중립성 (예-를)	오르내리다	를	사람들이 계속해서 계단을 오르내리다
	다녀오다	를	현수는 지난 주 고향집을 다녀왔다
	찾아가다	에	우리는 어젯밤 교수님댁에 찾아가다
	탑승하다	*에서	*승객들이 차례로 비행기에서 탑승했다
일탈성 (에서-를)	물러나다	*에	*그 선수는 결국 1위에 물러났다
	걸어나가다	에서	현주는 조용히 교실에서 걸어나갔다
	뛰어나가다	를	지연이는 급히 방을 뛰어나갔다
	비키다	에서	할머니가 오셔서 나는 자리에서 비켰다
도달성 (로-를)	들어가다	를	동생은 올해 한양대학교를 들어갔다
	달려가다	로	한 아이가 운동장으로 달려간다
	오르다	*에서	*경미는 빠르게 층계에서 올랐다
	들어서다	로	많은 신입생들이 강의실로 들어섰다

처치 실험인 문장 듣고 따라 말하기 과제에서 피험자들은 이 실험이 기억과 문장 구성의 관계를 보는 실험이며 점화 문장을 끝까지 듣고 기억해서 따라한 후에, 화면에 나오는 그림과 단어를 보고 문장을 만들어 발화하도록 안내를 받았다. 모든 피험자 집단은 한국어 점화 문장을 1회만 들었다. 〈표 4〉는 처치 실험에 사용된 점화 문장이다.

〈표 4〉 처치 실험에 사용된 점화 문장

구문 유형	사용 조사	동사	점화 문장
방향중립성	를	방문하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다녀가다	경찰이 오늘 옆집을 다녀갔다
		내려오다	누나가 갑자기 부산을 내려왔다

일탈성		드나들다	영희는 자주 일본에 드나든다
		통과하다	오빠는 겨우 시험을 통과했다
		타다	동우가 혼자 택시를 탔다
		다니다	영주는 이제 대학교를 다닌다
		참석하다	우리는 어제 생일 파티를 참석했다
	에	방문하다	민우가 오늘 우리 집에 방문한다
		다녀가다	그가 어제 우리 집에 다녀갔다
		내려오다	직원 한 명이 경비실에 내려왔다
		드나들다	리밍은 매일 내 방에 드나든다
		통과하다	현수는 1등으로 면접에 통과했다
		타다	동생은 기쁘게 회전목마에 탔다
		다니다	오빠는 좋은 회사에 다닌다
		참석하다	학생들이 모두 입학식에 참석했다
	를	떠나다	링링은 작년에 한국을 떠났다
		벗어나다	회사는 이제 위기를 벗어나다
		나가다	왕호가 방금 교실을 나갔다
		탈출하다	범인이 어제 감옥을 탈출했다
		달리다	아이들은 신나게 잔디밭을 달린다
		걷다	한 여자가 혼자 바닷가를 걷는다
		산책하다	영희는 혼자서 캠퍼스를 산책했다
		헤매다	우리는 명동을 한참 헤맸다
	에서	떠나다	그는 영원히 고향에서 떠났다
		나가다	우리는 이제 강의실에서 나간다
		벗어나다	그들은 드디어 가난에서 벗어나다
		탈출하다	사자가 또 동물원에서 탈출했다
		달리다	그는 혼자 길가에서 달렸다
		걷다	언니는 매일 밤 집 앞에서 걷는다
		산책하다	나는 매일 집 근처에서 산책한다
		헤매다	명수는 오랫동안 길에서 헤맸다

도달성	를	걸어가다	한 남자가 천천히 길을 걸어간다
		지나가다	민수가 조용히 복도를 지나갔다
		건너가다	우리는 걸어서 한강대교를 건너갔다
		뛰어가다	학생들이 빠르게 운동장을 뛰어간다
		들어가다	명수가 드디어 집을 들어갔다
		들어오다	새 한 마리가 집 안을 들어왔다
		올라가다	사람들은 모두 빠르게 계단을 올라갔다
		향하다	그들의 비난은 우리를 향했다
	(으)로	걸어가다	아이들이 얼음 위로 걸어간다
		지나가다	그 여자가 내 앞으로 지나갔다
		건너가다	그는 뛰면서 육교로 건너갔다
		뛰어가다	나는 오늘 늦잠자서 학교로 뛰어갔다
		들어가다	동생이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다
		들어오다	의사 선생님이 급히 병실로 들어왔다
		올라가다	민호는 일부러 사다리꼴로 올라갔다
		향하다	이 기차는 부산으로 향한다

피험자들은 각자 정해진 시간에 외부와 분리된 실험 공간에 와서 한 명씩 실험에 참여했다. 모든 단계의 실험은 기존 연구의 예를 따라서 E-prime 2.0 프로그램이 사용되었고 문장 완성 과제는 Samsung Galaxy Note 8 Voice recorder를 사용하여 피험자 발화를 녹음하였다.

실험에 앞서, 실험 과제에 사용될 방향중립성, 일탈성, 도달성 이동동사 구문 3개 유형에서 각 16개씩 총 48개 실험 문항을 선정하였다. 실험 진행을 통해 학습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실험 과제에는 혼란 문항이 첨가되었다. 혼란 문항은 점화 문장에 20개, 문장 완성 과제와 수용성 판단 과제에 각각 10개 문항을 포함시켰다.

문장 완성 과제에서 피험자가 발화한 조사의 빈도를 각 조사교체 유형별로 측정하여 처치 전과 후를 비교했다. 통계 검정을 위해서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수용성 판단 과제에서 피험자 응답의 정답률을 비교하여 점화 자극으로 인해 학습자의 구문에 대한 이해에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보았다.³⁾ 처치 전과 후 수용성 평균 점수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원 분산 분석 방법으로 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IV. 연구 결과

1. 통사 점화 효과로 인한 이동동사 구문 산출 변화

처치 전과 처치 후 실험에서 피험자가 발화한 구문에 사용된 조사를 <표 5>에 정리했다.

<표 5> 한국어 학습자의 문장 완성 과제 결과

L1	구문	발화 조사	처치 전	처치 후	평균차
중국인 학습자	방향중립성 이동	에	69%	46%	-23%
		를	17%	26%	9%
		그 외	14%	28%	14%
	일탈성 이동	에서	21%	20%	-1%
		를	12%	27%	15%
		그 외	67%	53%	-14%

- 3) 학습자의 문법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오를 판단하는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해야 하지만, 본 연구는 피험자의 수(25명)가 정규 분포를 이룰 정도로 충분히 크지 않아서 방법론적인 이유로 수용성 판단 과제를 실시했다.

일본인 학습자	도달성 이동	로	14%	20%	6%
		를	1%	20%	19%
		그 외	85%	61%	-24%
	방향중립성 이동	에	84%	38%	-46%
		를	14%	56%	42%
		그 외	2%	7%	5%
	일탈성 이동	에서	18%	9%	-9%
		를	50%	79%	29%
		그 외	32%	13%	-19%
	도달성 이동	로	14%	10%	-4%
		를	20%	53%	33%
		그 외	66%	38%	-28%

〈표 5〉의 결과를 보면, 대체로 처치 후 실험에서 ‘를’ 구문 사용 빈도가 처치 전보다 증가한 반면, ‘를’ 이외 구문은 감소한 경향성을 보인다. 처치 전, 후의 구문 산출 상 조사 사용 빈도 간 차이를 two-way ANOVA로 검정한 결과 처치 전과 처치 후의 ‘를’ 구문 사용 빈도 차이($F=46.746$, $p=0.001$) 그리고 학습자 집단 간($F=27.17$, $p=0.001$)의 ‘를’ 구문 사용 빈도 차이는 모두 유의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즉, 점화 처치로 인해 학습자의 이동동사 구문 산출 방식은 점화 처치 후 유의하게 변화했으며 학습자 집단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리하자면, 통사 점화효과는 학습자들의 이동동사 구문 산출에 차이를 발생시켰으며 그 차이는 학습자 L1에 따라 달랐다.

이제 중국인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 집단 간 구문 산출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구문 유형별로 살펴보겠다. 먼저 중국인 학습자들의 방향중립성 이동동사 구문, 일탈성, 도달성 이동동사 구문 산출에 나타난 ‘를’ 사용 빈도는 처치 후에 증가했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세 경우 모두 $p=0.001$). 즉, 통사 점화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동동사 구문을 산출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일본인 학습자의 경우에 구문 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방향중립성, 도달성 이동동사 구문에서 ‘를’ 구문 산출은 점화 처치 후에 증가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각각 $p=0.858$, $p=0.851$), 일탈성 이동동사 구문 산출에 있어서만 ‘를’ 구문 산출 빈도가 증가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결론적으로 중국인, 일본인 학습자 모두 ‘를’ 구문 점화 처치 후 ‘를’ 구문의 사용 빈도가 증가했다. 그러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는 학습자 집단에 따라, 구문의 유형에 따라 달랐다.

2. 통사 점화 효과로 인한 이동동사 구문 이해 변화

처치 전과 처치 후 실험에서 피험자가 보인 이동동사 구문 수용성 판단 과제 정답률을 <표 6>에 정리했다.

<표 6> 한국어 학습자의 수용성 판단 과제 결과

L1	구문	처치 전	처치 후	평균차
중국인 학습자	방향중립성 이동	66.5%	67%	0.5%
	일탈성 이동	65.5%	60.5%	-5%
	도달성 이동	69%	64.5%	-4.5%
	total	67%	64%	-3%
일본인 학습자	방향중립성 이동	58%	62%	4%
	일탈성 이동	75%	55%	-20%
	도달성 이동	69%	62%	-7%
	total	67%	60%	-7%

<표 6>을 보면 중국인, 일본인 학습자 집단 모두에서 이동동사 구문에 대한 수용성 판단의 정확성이 처치 후 오히려 감소했다. 학습자 집단 간 차

이를 보면, 중국인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의 수용성 판단 정확성은 처치 전에는 두 집단이 비슷했으나(67%), 처치 후에 중국인 학습자 집단의 점수(64%)가 일본인 학습자 집단(60%)보다 4%가 더 높아졌다.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two-way ANOVA를 통해 살펴본 결과, 처치 전후의 수용성 판단 점수 차이($F=0.325$, $p=0.57$) 그리고 학습자 집단 간($F=0.089$, $p=0.766$)의 이동동사 구문 수용성 판단 점수 차이는 모두 유의 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정리하자면, 통사 점화로 인해 학습자의 이동동사 구문 수용성 판단 정확성은 처치 후 두 집단 모두에서 감소했다. 즉, 통사 점화 효과는 없었다. 또한 학습자 집단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구문 유형별로 각 학습자 집단의 구문 수용성 판단 정확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중국인 학습자 집단의 경우 방향중립성, 일탈성, 도달성 이동동사 구문 모두에서 처치 전후 수용성 판단 점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각 $p=0.396$, $p=0.253$, $p=0.735$). 일본인 학습자 집단도 마찬가지로 처치 전후의 수용성 판단 점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각 $p=0.190$, $p=0.499$, $p=0.127$).

결론적으로 통사 점화효과는 중국인, 일본인 학습자의 이동동사 구문에 대한 수용성 판단, 즉, 이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구문 유형별 차이도 없었다.

V. 결론

먼저, 연구 문제 1의 ‘통사 점화 효과가 학습자의 언어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학습자 집단에 따라, 이동동사 구문유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다. 문장 완성 과제에서 피험자가 발화한 이동동사 구문에 사용된 조사의 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중국인 학습자 집단의 경우 방향중립성, 일탈

성, 도달성 이동동사 구문 유형 모두에서 처치 후에 ‘를’ 사용 빈도가 증가했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통사 점화는 중국인 학습자의 이동동사 구문 산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일본인 학습자 집단도 중국인 학습자 집단과 동일하게 3개 이동동사 구문 유형 모두에서 처치 전보다 처치 후에 ‘를’ 사용 빈도가 증가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일탈성 이동동사 구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통사 점화는 일본인 학습자의 모든 이동동사 구문 산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 어렵고, 구문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연구 문제 2의 ‘통사 점화 효과가 학습자의 언어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3개의 이동동사 구문 유형 모두에서 통사 점화 처치 후에 수용성 판단 정답률은 하락했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통사 점화는 중국인, 일본인 학습자의 이동동사 구문에 대한 수용성 판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연구 문제 3의 ‘통사 점화 효과가 학습자의 L1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해, 모든 유형의 한국어 이동동사 구문의 산출에 있어서 중국인 학습자 집단과 일본인 학습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학습자의 L1이 L2 산출 상 통사 점화 효과에 차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사 점화가 L2 학습자들의 단기적 산출 방식 변화를 가져오기는 했으나 이해 방식 즉, 지식 체계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못했다. 이는 조사 교체와 같이 교실 현장에서 명시적 교수가 어려운 문법 항목의 경우 집중적 패턴 드릴과 같은 암시적 교수법을 활용할 경우 해당 구문 산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습자 L1과 구문 유형에 따라서 점화 효과에 차이가 있었던 결과는 L2 습득에 있어서 L1 전이와 어휘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본 논문은 2020.8.10. 투고되었으며, 2020.8.21. 심사가 시작되어 2020.9.10.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박분주(2009), 「영어발화에 나타난 타동사 통사 구조 유지성」, 『현대영어교육』 10(1), 207-223.
- 신정아(2015), 「L2 Structural Generalizations Through Structural Priming」, 『현대영어교육』 16(2), 25-43.
- 심은지(2018), 「중국어 고급 학습자의 한국어 타동성 인식과 ‘을/를’ 중출구문 습득 양상 - 인타페이스 가설의 측면에서」, 『언어 과학』 25(3), 91-105.
- 이선희(2004), 『국어의 조사와 의미역』, 서울: 한국문화사.
- 정주리(2004), 『동사, 구문, 그리고 의미』, 고양: 국학자료원.
- Bernolet, S., Colia, S. & Hartsuiker, R. (2016), "The persistence of syntactic priming revisited",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91, 99-116.
- Bock, J. K. (1986), "Syntactic persistence in language production", *Cognitive Psychology* 18(3), 355-387.
- Bock, K. & Levelt, W. (1994), Language production: Grammatical encoding, In M. A. Gernsbacher(Ed.), *Handbook of psycholinguistics*,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ranigan, H. & Messenger, K. (2016), "Consistent and cumulative effects of syntactic experience in children's sentence production: Evidence for error-based implicit learning", *Cognition* 157, 250-256.
- Chang, F., Dell, G. S. & Bock, K. (2006), "Becoming syntactic", *Psychological Review* 113, 234-272.
- Dell, G. S. & Chang, F. (2014), "The P-Chain: Relating sentence production and its disorders to comprehension and acquisition",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369, 1-9.
- Goldberg, A. E. (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IL: Chicago UP.
- Jackson, C. N. & Ruf, H.T. (2017), "The priming of word order in second language German", *Applied Psycholinguistics* 38, 315-45.
- McDonough, K. & Trofimovich. (2009), *Using Priming Methods in Second Language Research*, Routledge: New York and London.
- Myer, D. E. & Schvaneveldt, R. W. (1971), "Facilitation in recognizing pairs of words: Evidence of a dependence between retrieval opera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90(2), 227-234.
- Pickering, M. J. & Branigan, H. P. (1998), "The representation of verbs: Evidence from syntactic priming in language production", *Journal of Memory and Language* 39(4), 633-651.

중국인과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이동동사 구문 산출과 이해에 나타난 L2 통사 점화 효과

심은지

본 연구의 목적은 L2 학습자들이 문장 구조를 결정하는 기제를 확인하고 문법 지식 습득에 있어 효과적인 암시적 학습법을 찾는 것이다. 통사 점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처치 전, 처치, 처치 후 3단계로 실험을 구성하였다. 처치 전, 처치 후 실험에는 문장 완성하기 과제, 수용성 판단 과제를 사용했고, 점화 처치를 위해 피험자들은 한국어 문장 듣고 따라 말하기 과제를 수행했다. TOPIK 5급 이상 중국인,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총 75명이 피험자로 참여했다. 실험 결과 통사 점화는 중국인 학습자의 구문 산출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왔지만 일본인 학습자들에게는 일탈성 이동동사 구문을 제외하고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나 점화 효과로 인해 모든 피험자 집단에서 '를' 사용 빈도가 처치 전보다 유의하게 증가했다. 이로 보아 조사 교체 구문과 같이 까다로운 문법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 통사 점화와 같은 암시적 학습법이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어 통사 점화, L2 점화 효과, 이동동사 구문, 조사 교체, 암시적 학습, 구문 문법, 사용 기반 접근

ABSTRACT

L2 Syntactic Priming Effect in Production and Comprehension of Korean Movement Construction

Shim Eunj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how L2 learners choose a sentence structure and figure out the effective implicit learning methods of grammatical knowledge acquisition. To examine the syntactic priming effect, this study designed a three-step experiment: pre-test, treatment, and post-test. The participants carried out a sentence completion task and an acceptability test during the pre-test and post-test steps. For the priming treatment, participants were asked to repeat the Korean sentences that they had heard. A total of 75 Chinese and Japanese Korean learners whose Korean level was higher than TOPIK 5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production of Korean movement construction in the Chinese learners group but not in the Japanese group, except in their production of divergent movement construction.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lul” construction use frequency among all the participants. This indicates that implicit learning methods, such as syntactic priming, can be effective in teaching grammar such as particle alternation.

KEYWORDS Syntactic Priming, L2 Priming Effect, Movement Construction, Particle Alternation, Implicit Learning, Construction Grammar, Usage-based Approach